

金昌協의 生涯와 思想

장 희 흥 / 남양주시지편찬위 상임위원

- 목 차 -

- I. 家系와 生涯
- II. 石室書院과 三洲三山閣
- III. 思想과 文學觀

I. 家系와 生涯

1. 家系

농암(農巖) 김창협은 본관은 안동으로 시조는 고려초의 태사공 선평(宣平)이다. 선평은 고창성주(古昌城主)로 고려 태조를 도와 건국을 물리치는데 큰 공훈을 세워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에 봉해졌다. 고창은 후에 안동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큰 벼슬을 하지 못하다가 조선 중기 김상헌과 김상응에 와서 자손이 번창하였다.

증조부는 김상헌(金尙憲 1570(선조 3)~1652(효종 3))으로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숙도(叔度)이고, 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 : 중년 이후 석실에 퇴거해 있으면서 사용)·서간로인(西澗老人 : 만년에 안동에 은거하면서 사용)이다. 돈녕부도정 극효의 아들이며, 우의정 상응의 동생이다. 어려서 큰아버지인 현감 대효(大孝)에게 출계하였다. 윤근수의 문인으로 송명파(崇明派)의 대표적 인물이다. 1590년(선조 23) 진사시에 합격하고, 왜란이 진행되던 1596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에 임용되었다. 그 후 부수찬·좌랑 등을 거쳐 1601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길운절

의 역모사건을 다스리기 위한 안무어사로 파견되었다. 1608년(광해군 즉위) 문과중시에 급제하고, 사가독서한 뒤 응교·직제학을 거쳐 동부승지가 되었으나 이언적과 이황 배척에 앞장선 정인홍을 탄핵하였다가 광주부사로 좌천되었다. 1613년 칠서지옥(七庶之獄)이 발생,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이 죽음을 당할 때 혼인관계(김상헌의 아들 광찬이 김제남의 아들 협의 사위임.)로 인해 파직되자 집권세력인 복인의 박해를 피하여 안동군 풍산으로 이사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이조참의에 발탁되자 공신세력의 보합위주정치(保合爲主政治)에 반대 시비(是非)와 선악(善惡)의 엄격한 구별을 주장함으로써 인조반정에 가담하지 않은 서인(청서파)의 영수가 되었다. 이어 대사간·이조참의·도승지·부제학을 거쳐, 1626년(인조 4) 성절 겸 사은진주사로 명에 다녀왔다. 이후 육조의 판서 및 예문관·성균관의 제학 등을 지냈다. 1632년 왕의 생부를 원종(元宗)으로 추존하려는 데 반대하여 벼슬에서 물러났다. 1635년 대사헌으로 재기용되자 군비의 확보와 북방 군사시설의 확충을 주장하였고, 이듬해 예조판서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고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펴다가 인조가 항복하자 안동으로 은퇴하였다. 1639년 청이 명을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청에 붙잡혀 갔다가 6년 후인 1645년 석방되어 그 해에 특별히 좌의정에 제수되고, 기로사에 들어갔다. 효종이 즉위하여 복벌을 추진할 때 그 이념적 상징으로 대노(大老)라고 존경을 받았으며, 김육이 추진하던 대동법에 반대하고 김집 등 서인계 산림(山林)의 등용을 권고하였다. 윤근수의 문하에서 경사(經史)를 수업하고, 성혼의 도학에 연원을 두었으며, 이정구·김유·신익성·이경여·이경석·김집 등과 교류하였다. 1653년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1661년(현종 2) 효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석실서원, 정주 봉명서원, 개성 숭양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조부인 김광찬(金光燦 1597(선조 30)~1668(현종 9))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사희(思晦)이고, 호는 운수거사(雲水居士)이다. 부사를 역임한 상관(尙寬)의 둘째 아들이다. 종서(宗序)를 중요시하는 할아버지 극효(克孝)의 뜻에 따라 작은 아버지인 문정공(文正公)·석실선생(石室先生) 상헌에게 출계(出系)하였다. 광해군 때에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않다가 1627년(인조 5) 생원시에 2등으로 합격하였다. 음보로 세사익위사세마가 되었으며, 병자호란 때 아버지를 따라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하였다. 통진·교하현감 등 지방관을 역임하고, 공조참의·청풍군수·파주목사를 지냈다. 그 후 둘째 아들 수흥(壽興)과 막내 아들 수항(壽恒)이 함께 영달하자 1668년(현종 9) 왕의 특명으로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고 동지중추부사에 제배되었다. 1637년 아버지 상헌이 척화를 주장하며 자살을 기도했을 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성품은 깨끗하고 공손하였으며, 특히 효성이 지극하여 양부

상헌이 청에 끌려가자 호곡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인 김수항(金壽恒 1629(인조 7)~1689(숙종 15))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구지(久之)이고, 호는 문곡(文谷)이다.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광찬이다. 1646년(인조 24) 반시(泮試)에 수석하고, 진사시에 장원을 했으며, 1651년(효종 2) 알성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성균관전적이 되었다. 이어 병조좌랑·사서·경기도사·지평·정언을 거쳐, 1653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에 다녀왔다. 그 해에 정시에 5등으로 합격하여 효종으로부터 말을 하사받았으며, 이듬해 홍문관부수찬·교리를 거쳐 이조정랑이 되었고, 중학·한학교수를 겸하였다. 1655년 사가독서하고 수찬이 되었다가, 응교·사간·보덕을 지냈으며, 1656년 증시에서 을과로 급제하여, 형조참의·승지·부제학을 지냈다. 1659년(현종 즉위) 효종릉비의 전서를 쓴 공로로 가선대부에 오르고, 도승지·예조참판·이조참판을 지냈다. 1662년 왕의 특명으로 예조판서에 발탁되었다. 그 뒤 육조의 판서를 두루 거쳤고, 특히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명사들을 조정에 선임하는 데 힘썼다. 1672년 44세의 나이로 우의정에 발탁되고, 이어 좌의정에 승진하여 세자부를 겸하였다. 그러나 서인 송시열 등이 왕의 경원을 받고 물러남을 본 뒤 남인 재상 허적을 탄핵한 대간을 힘써 변호하다가 도리어 판중추부사로 물러났으며, 사은사로서 청에 다녀왔다. 1674년 갑인예송에서 서인이 패하여 영의정이던 형 수홍이 쫓겨나자, 그 대신 좌의정으로 다시 임명되었다. 숙종 즉위 후 허적·윤휴를 배척하고 종실 복창군 정과 복선군 남 형제의 추문을 들어 그 처벌을 주장하다가 집권파인 남인의 미움을 받아 영암에 유배되고 1678년(숙종 4) 철원으로 이배되었다. 1680년 이른바 경신대출척이 일어나 남인들이 실각하자 복귀되어 다시 영의정이 되어 남인의 죄를 다스리는 한편, 송시열·박세채 등을 불러들였다. 이후 8년 동안 영의정으로 있다가 1687년 영돈녕부사로 체임되었고, 1689년 태조어용을 전주에 모셔놓고 돌아오는 길에 기사환국이 일어나 남인이 재집권함으로써, 남인 명사를 남살하였다는 장령 김방걸 등의 탄핵을 받고 진도로 유배, 위리안치되었다. 뒤이어 예조판서 민암을 비롯한 6판서·참판·참의 등 남인 경재(卿宰) 수십인의 공격과 사헌부·사간원의 합계(合啓)로 사사되었다. 이는 경신 이후의 남인 옥사를 다스림에 있어 그가 위관으로 있었고, 특히 소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인 재상 오시수를 처형하였기 때문에 입게 된 보복이다. 그는 절의로 이름 높던 김상헌의 손자로 가학(家學)을 계승하였고, 김장생의 문인인 송시열·송준길과 교유하였다. 특히 송시열이 가장 아끼던 후배로 한때 사림의 종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할 때 송시열을 옹호하고 외척과 가까운 노론의 영수가 되었던 관계로, 소론 명류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하였다. 시문에 뛰어났고 그의 변려문은 당대의 제일인자로 손꼽혔으며, 가풍을 이은 필법이 단아하여 전서와 해서·초서에 모두 능하였다. 사후의 세평은 그가 조정에서 벼슬할 때 세가지의

큰 절의를 세웠다고 찬양하였는데, 첫째는 남인의 역모를 꺾음으로써 기강을 유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소론이 이론(異論 : 남인에 대한 온건한 처벌주장을 말함.)을 일삼아 홍당(凶黨 : 남인)을 기쁘게 할 때에도 홀로 옳은 것을 지켰을 뿐 아니라 화를 당하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윤증이 송시열에게 배사(背師)한 죄를 통렬히 배척하여 선비의 갈길을 밝혀 사문(斯文)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평은 물론 그가 속한 노론계의 주장이며, 반대로 소론측에서는 그가 송시열과 윤증 사이의 사사로운 일을 임금에게 아뢰어 조정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마침내 사림을 분열시켜 놓았다고 비난하였다. 1694년에 신원, 복관되었다. 1886년(고종 23)에는 현종 묘정에 배향되었고, 진도의 봉암사, 영암의 녹동서원, 영평의 옥명서원 등에 제향되었으며, 석실서원, 전주의 호산사에 추가 제향되었다.

형제들도 충중하여 위로는 창집(昌集 : 1648~1722)으로 영의정에 올랐으며, 창흙(昌翕 : 1653~1722)은 학자로 유명하며, 창업(昌業 : 1658~1721), 창집(昌緝 : 1662~1713) 등 학자로 유명하다.

2. 生涯

김창협(金昌協 : 1651(효종 2)~1708(숙종 34))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삼주(三洲), 본관은 안동이다. 좌의정 상헌의 증손자이며, 아버지는 영의정 수항, 어머니는 안정(安定) 나(羅)씨로 성두(星斗)의 딸이다. 영의정을 지낸 창집의 아우이며, 이단상(李端相)의 사위이다. 과천 명월리 외가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명랑하고, 슬기로웠다. 농암은 9세(1659)에 외조부인 牧使公을 따라 해주에 갔다. 농암은 행동거지에 법도가 있었다고 하며, 독서와 생각에 잠겨 잠자는 곳을 잊곤하였다고 한다. 15세(1665)에 연안이씨에게 장가 들었다. 연안이씨는 정관제 이단상(李端相)의 따님이다. 장인 이단상은 양주 영지동에 머물면서 학문에 정진하면서 학자로 널리 이름을 떨치던 사람으로 농암 역시 학문적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

19세(1669)에 진사시에 3등으로 합격하고, 9월 스승인 장인 정관제 이단상이 죽고, 이후 『靜觀齊言行述』을 지었다. 더욱 경학에 열중하여 古文을 지음에 전념하고 한유와 구양수에 심취하였다. 24세(1674)때 우암 송시열을 찾아 공부하고 용문산에 들어갔다. 이후 신흥사에서 공부하고 이때 우암 송시열로부터 많은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29세(1679)에 영평에 머물면서 학문에 열중하면서 「隱求菴記」, 「洞陰對」는 이곳에서 저술한 것으로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자연에 묵혀 유유자적하는 담백한 생활태도가 엿보이는 이때의 저술이다.

30세(1680) 때 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몰락함에 부친이 영의정에 제수되자 서울까지 수행하였으며, 32세(1682)에 아들 崇謙을 낳았다. 그해에 증광문과에 전시장원으로 급

제하여 성균관전직에 출사하였다. 이후 농암은 33세(1683)에 병조좌랑·사헌부지평·홍문관부수찬 수찬을 거쳐 홍문관부교리·한학교수·사헌부헌납을 역임하였다. 34세(1684)에 홍문관교리 겸 남학교수·헌납·이조좌랑 등을 역임하고, 35세(1685)에 지제교·함경북도병마평사·교리겸 중학교수·헌납·이조좌랑을 지냈다. 36세(1680)에 이조정랑·장악원정·사헌부집의·승정원동부승지·성균관대사성·병조참지·예조참의를 지내고, 37세(1687)에 사헌부대사간·대사성·승문원부제조·청풍부사를 역임하였다. 이때의 10년간은 가문 모두에게 어려움이 없이 모두 벼슬길에 올라 관직 생활에 충실하였다. 특히 36세때 결핵증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여 강연중 객혈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689년 기사환국이 일어나 노론이었던 가문은 몰락하게 되었다. 이후 농암은 많은 고초를 격게 되고 집안도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해 2월 부친인 문곡 김수항이 진도로 유배되고, 중부인 퇴우당 김수홍도 장기에 유배되자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로 돌아왔다. 3월 부친을 진도에 가서 알현하고, 4월 부친이 돌아가시자 5월에 양주 율북리에 안장하였다. 이후 학문 연구에 충실하여 논어를 통달하고 송시열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를 왕명을 받아 교정하였다.

42세(1692)에 농암서실을 완성하였으며, 농암은 응암 동쪽에 있었다. 이것은 여기서 우거하며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오직 일개의 농부로서의 뜻을 간직하려는 의지가 포 함된 것으로 당시 가문과 일신상에 밀어닥친 고난의 연속이 이와같은 의지를 배태시켰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호를 지었던 것이다. 이후 주로 이곳에서 학문연마와 저술 활동에 전념하였다. 44세(1694)에 갑술옥사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숙종은 김수항의 관작을 복위시키는 한편 농암에게도 호조참의를 제수하였다. 그러나 농암은 상소문을 올려 자신이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는 불효자임을 역설하였다.¹⁾ 이후 농암은 벼슬을 멀리하였고, 벼슬길에 나아가더라도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해에 나라에서는 홍문관부제학·대사간·승정원부승지·우부승지·좌부승지 등이 제수되었으나 3번에 걸친 상소로 체직이 허락되었다. 45세(1695)에도 국정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여 각종 요직을 내려졌다. 이조참의·홍문관부제학·개성유수·형조참판·사헌부대사헌 등을 내렸으나 사직소를 올려 사양하고, 이에 숙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해 11월 석실서원에 머물면서 문생들과 강학을 하며 소일하였다. 그 후 몇년 동안 계속해서 요직이 내려졌지만 사양하고 서울집과 삼주(三洲)를 왕래하면서 강학에 몰두하였다.

50세(1700)에 대사헌을 내려지만 2번에 걸쳐 사직소를 올려 사양하였다. 그해 7월에 3째 딸이 죽고, 10월 유일한 혈육인 아들 송겸이 죽었다. 이에 농암의 말년은 쓸쓸하

1) 『농암집』권8, 사호조참의조.

게 보내게 된 것이다. 53세(1703)에 2월 2째 딸이 죽고, 6월 모친 나씨가 죽어 슬픔이 극도에 달하게 되었다. 농암은 56세(1706)에 양관 대제학이 내려졌지만 부친이 거쳐간 자리를 3번에 걸친 상소로 사직하였다. 이후 형조판서·예조판서·세자좌우부빈객이 내려졌지만 사양하였다. 이와같은 사양은 기사환국으로 부친을 잃고 중부인 김수홍과 스승인 우암마저 사사되는 형국에 관직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의미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양하였던 것이다. 또한 여기에 학문에 대한 애착을 갖고 이를 완성하고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병인 결핵이 그의 출사를 막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결국 농암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 몸은 쇠약되었고, 자주 각혈하였다. 마침내 숙종 33년(1708)에 4월 11일 5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 6월 석실에 묻히게 되었다. 농암이 사후 17년이 지난 1725년(영조 1)에 “道德博聞曰文 一德懈曰簡”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농암은 일찍 죽은 아들 송겸과 요절한 아들 청상, 그리고 5녀를 두었다.

그의 성격은 평소에 부드럽고 화기가 가득하지만 의리를 변핵함에 있어서는 성조(聲調)를 높여 기절(氣節)이 강개하여 담봉(談鋒)을 범하지 못하였고, 선입(先入)한 의견을 내세우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옳으면 곧 주장한 바를 양보하였다. 후학을 순순히 교화하여 모두 심복하게 하였다. 문장은 단아순정(端雅純正)하여 구양수의 정수를 얻고, 시는 두보의 영역에 출입하였으나 답습과 조회(藻繪)를 일삼지 않고 고고건아(高古健雅)하였다. 학문은 이황과 이이의 설을 절충하였다. “사단(四端)은 선(善)뿐이고 칠정(七情)은 선과 악을 겸하였으니, 사단은 오로지 이(理)만 뜻하고 칠정은 기(氣)를 겸한 것”이라는 이이의 설에 대하여, 다만 “기까지 겸하였다 하는 한 구절이 다르다. 칠정이 비록 이와 기를 겸하였더라도 그 선한 것은 기가 능히 이를 따랐음이고, 그 선하지 않은 것은 기가 능히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니, 처음부터 기가 주된 것”이라고 하여 이황의 기발이승(氣發理乘)의 설을 찬동하였다. 또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도 “기의 맑은 것이 다 선하나 선한 정(情)이 모두 맑은 기에서 나왔다 함은 옳지 않으며, 정의 악한 것이 탁(濁)한 기에서 나왔으나 탁한 기가 발(發)하여 된 정이 모두 악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인심의 동(動)함에 이가 비록 기에 탔어도 기가 또한 이의 명령을 듣는 것이다. 만약, 선악의 정을 모두 기의 청탁에 돌린다면 이의 실체와 성(性)의 선함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성악논변(性惡論辨)』에서는 “사람의 성은 본래 선한 것이나 순경(荀卿)이 인성을 악하다고 말한 것은 기요, 성이 아니다. 대체로, 사람이 세상에 날 때 기는 질(質)이 되고 이는 성이 되는 것인데, 이에는 선만 있고 악이 없으나 기에는 선한 것도 있고 선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 사람에게 선하지 못함이 있음은 기의 소위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대체로 이기설은 이이보다는 이황의 설에 가까우며 호론(湖論)을 지지하였다.

특히 문장에 능하며 글씨도 잘 써서 문정공이단상비(文貞公李端相碑)·감사이만웅비(監司李萬雄碑) 등이 있다. 숙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양주의 석실서원, 영암의 녹동서원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농암집』·『주자대전차의문목(朱子大全筭疑問目)』·『논어상설(論語詳說)』 등이 있다.

II. 石室書院과 三洲三山閣

1. 石室書院의 形成과 淸陰 金尙憲

석실서원²⁾은 尊明事大와 反淸의 旗幟를 표방함으로써 후일 北伐論의 理念的 表像으로서 길이 추앙의 대상이 되었던 淸陰 金尙憲의 道德과 忠節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원이었다. 따라서 그 장소도 그가 晩年에 寓居하다가 終身하였으며, 또 그의 萬年幽宅이 자리하고 있는 楊洲 瓦孔面 陶氏里(現 와부면 덕소리) 石室村이었다. 李景奭을 위시한 당대 조정의 명사들과 사림의 발의로 효종 7년(1656)에 창건된 이 석실서원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림의 講學과 藏修라는 서원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士林政治아래 朋黨政局이 변전하는 속에 정치적·사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有數한 서원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처음에는 西人系 서원으로 이어 노·소론 분당 후에는 노론계, 그리고 노론 내에서 人物性 논쟁으로 湖論·洛論이 갈릴 때는 낙론의 진원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후기 사대부문화의 큰 특색인 眞境文化의 産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뿐 아니라 영조·정조 년간의 탕평정국에서는 한때 調劑탕평에 반대하는 義理論의 본거지였으며, 國舅인 金漢耆와 결탁한 湖論系의 정치세력에 대항하는 戚臣 洪鳳漢의 정치적 우익이 되기도 하였고 김상헌의 직계 후손이 주축이 된 안동김씨 세도정권 하에서는 그것의 집권명분을 정당화해주는 정치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석실서원은 1,000여개에 이른다는 조선 후기의 수많은 서원 중에서 정치적·사상학문적으로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손꼽히는 서원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실서원은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철폐된 후 유적 유물은 물론이고 관련된 古文書나 기록 등 文蹟 또한 거의 남아있지 않고, 더욱이 지금은 그 정확한 위치³⁾나 건물규모 및 배치 등에 관한 이해마저 확실치 못한 상태로 世人의 관심에서 벗어나 忘却된 채로 있다.

16세기 중반 石室書院의 창건과 운영을 주도하게 되는 안동김씨가 입향하게 된다.

2) 이 글은 정만조, 「석실서원」, 『남양주지』,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2000간행예정.

3) 석실서원의 위치는 崔完秀의 『謙齋 鄭數 眞景山水畫』(범우사, 1993)의 『漢水舟遊』편에 실린 謙齋의 京郊名勝帖 가운데 제4圖 石室書院과 제5圖 三洲三山閣에서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그곳을 답사하던 趙末生의 神道碑가 있는 근처로 추정된다.

원래 안동에서 세거하던 김씨는 金璠이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계기로 서울의 북악산 아래로 이주하였다. 김번이 죽자, 楊州 石室에 묘소를 마련하였고 이로부터 양주 석실산이 안동김씨의 墓山이 된 것이다.⁴⁾ 안동김씨가 양주에 葬地를 쓰게 된 이유는 통혼관계에서 그 단초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김번은 상경한 후 南陽洪氏 傑의 女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는데 그의 처가인 홍씨집안은 세조·성종 년간에 연이어 공신을 배출하였던 훈구계열에 속하였으며 일찍이 와부면 일대에 墓山을 갖고 있었다. 15세기 당시까지의 男歸女家婚의 풍속으로 볼 때 김번의 묘가 와부면 석실에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홍씨와의 혼인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균분상속에 의한 安金의 경제력의 집적은 앞서 언급한 金璠의 葬地를 그의 처가인 남양홍씨의 기반이 있는 양주로 택정한 것이나, 金璠의 아들 生海(1512~1558)가 成宗의 10번째 아들인 景明君 李忱(本 全州)의 사위로 부유한 처가의 재산을 분급받았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 이외에 서울 인근의 토지는 석실의 祭需비용 마련을 위한 墓田 약간과 漢陰에 밭 10餘畝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경기일대에 약간의 토지가 있었는데 관리하지 않아 타인에게 넘어 갔다가 庶姪이 되찾아 온 것이 있다.⁶⁾ 이처럼 가산으로 얼마간의 토지는 있었지만 日用에 대기도 어려웠던 관계로 官穀에 의지하여 생활하거나 金尙憲이 石室에 거주할 시 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녹봉으로 지급한 本州의 전세를 받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착의 기반이 잡혀가던 안동김씨가 조선후기 대표적인 名閥의 하나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는 金尙容(1561~1637)과 金尙憲(1570~1652)대부터이다. 金尙容은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 嬪宮과 元孫을 수행하여 피난하였다가 성이 함락되자 남문루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국한 인물이다. 金尙憲은 인조반정 이후 清西派의 영수로서 활동하다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주화론을 배치하고 끝까지 主戰論을 주장한 인물이다. 인조 17년(1639)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어 7년간 구금생활 끝에 풀려났다. 귀국후 대부분 은둔하며 생을 마쳤지만, 孝宗이 복辟을 추진할 때 그 이념적 상징인 ‘大老’로 추대되어 조야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瀋陽에서의 7년간에 걸친 拘禁생활에서 풀려나 귀국한 청음은 先山이 있는 와부면

4) 김번의 묘소는 풍수지리에서는 명당으로 불리워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김번의 묘소를 정할 때 그 伯父로서 성종~중종년간에 名僧으로 이름높던 燈谷大師(菴 學祖)가 이곳에 터를 잡아주었고, 이후 명당의 영험으로 후손들이 번성하여 부귀를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 石室村에는 金 이외에도 生海-大孝-尙憲-光燦-壽增으로 이어지는 宗家와 克孝·尙容·昌協 등 安金內 有名人의 墓所가 있어 이곳이 조선시대 安金의 墳山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5) 竊聞先王考(김상헌=필자)聘禮納采 用木綿玄 時萬曆乙酉也 王考出繼三嘉府君 信川祖 方在堂 祖 以王孫女家產頗饒而爲宗孫婚需如此(金壽增『谷雲集』 권3, 家記『(石室)雜錄』(문집총간125).

6) 안동김씨는 서울 이외에도 安東에 약간의 토지가 있었다. 安東은 金 이 상경하기 이전에 거주하던 곳으로 이곳의 토지는 세세로 내려오는 先業으로 추정된다. 이 토지는 매년 수십석의 소출이 있었다고 하는데 병자호란 때 金壽增이 祖를 모시고 피난하여 머물며 잠시 경영하였다.(金壽增『谷雲集』 권3, 家記『丙丁避亂事實』(문집총간125))

에 寓居하고자 하였다. 원래 이곳은 청음의 조부(諱 生海)가 丙舍(墓幕)을 두었던 곳으로 이미 청음이 인조 10년에 옛터 앞에 祠堂을 세우고 그 남쪽언덕 100여 걸음 되는 지점에 두 칸 짜리 작은 집을 지어 두는 등 일찍부터 공을 들인 곳이었다.(이 건물은 청음에 의해 인조 25년 사당 오른쪽으로 옮겨지며 후일 그의 손자 谷雲 金壽增에 의해 수리되어 松栢堂이란 현판을 걸게 된다)⁷⁾ 청음은 우선 그때까지 賊室로 불리우던 지명을 石室로 고치고 자신의 雅號 역시 石室山人이라 하면서 終老之地로 삼았다. 효종이 즉위하여 복벌의 명분을 강하게 표방하던 시기 국왕은 김상헌을 ‘大老’로 추대하여 조야 사림의 중망을 모으려 하였다. 김상헌 역시 산림인 金集을 추천하거나 山人세력의 정책을 지지하여 척화신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처럼 양주 石室은 김상헌의 은거로 인해 西人들에 의해 부각되었고, 이는 그의 사후 곧이어 서원이 창건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효종 3년(1652) 김상헌이 死去하자 그의 손자 김수증은 무덤 옆에 2칸의 초옥을 지어 陶山精舍라 명명하였고, 또한 그 祖父의 유해를 기리기 위해 두쪽의 돌을 세워 각각 ‘陶山石室間와 孤松五柳門’란 5자씩을 刻字하여 세웠다.⁸⁾

문중내에서 이루어진 崇祖 顯彰노력과 함께 청음 김상헌을 추송하기 위한 사업은 京外 章甫들에게까지 확산되어 立祠를 위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아래에서는 조선후기 서원의 건립 추이를 개관하고 金尙憲과 金尙容 並享의 석실서원의 창건과 사액의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석실서원이 창건되던 17세기 중반은 사림에 의한 서원 건립이 활발하던 시기이다. 조선후기 서원은 사림의 등장과 함께 성장한 것으로 그 건립의 추이는 시기별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석실서원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17세기 중엽 서원의 건립이 확산되는 추세속에서 김상헌 이 석실의 村居에서 8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지 2년후인 효종 5년(1654) 양주 유생을 비롯한 중외 사족의 立祠 논의가 일어나 건립에 착수하게 된다. 석실서원 창건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끝내 자취를 거두어 명을 마치시니 搢紳이 領袖를 잃은 것을 애통해 하였고, 章甫들은 대들보가 꺾어짐을 슬퍼하였다. 이에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의견이 모여 드디어 서로의 힘을 다하여 높은 산을 우러러보는 곳에 장차 俎豆를 두어 영령을 모시고자 하였다.……

7) 金壽增 『谷雲集』 권3, 家記 『松栢堂志感』(문집총간125) 현재 남양주시 덕소리 석실 마을을 답사하면 그 입구에 松栢堂 遺墟碑가 서있다. 崇禎紀元四 辛酉(1861, 哲宗 14)春에 金汶根이 撰하고 金輔根이 書한 유허비는 松栢堂이란 편액을 谷雲(金壽增)이 追編하여 걸었다고 하였다.

8) 宋時烈 『宋子大全』 권141 記 『陶山精舍記』, 金壽增 『谷雲集』 권3, 家記 『書陶山精舍記後』(문집총간125).

9) 李景奭, 『白軒集』, 卷14, 石室書院上梁文(문집총간 95).

李景奭이 지은 위의 상량문에 의하면 경외의 사족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서원 공역은 별다른 반대나 이견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서원이 세워진 장소는 청음이 寓居하던 石室村에서 조금 떨어져 풍광이 수려하고 육로나 특히 뱃길을 통해 왕래가 편한 한강가(즉 오늘날의 미음부근)에 세워졌으며¹⁰⁾ (따라서 현재의 덕소리에는 청음집안의 묘소가 있는 石室村과 서원이 있던 곳인 石室의 두 곳이 있다) 우선 김상헌과 그 伯氏인 김상용을 모셔 並享하였다. 하지만 서원건립 당시 재정적으로 궁핍하였는지 서원 창건공역은 2년 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廟宇 공역이 끝난 이후에 講舍가 영건되는 것¹¹⁾ 으로 보아 원생들이 거처하는 東齋·西齋의 건물은 이후 하나씩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 건립된 김상헌·김상용 병향의 서원은 현종 4년(1663)에 이르러 ‘石室’이라는 사액을 받게 된다.¹²⁾ 양주 유학 李樞 등의 발의¹³⁾로 이루어진 사액 요청은 당시 서원의 첩설폐가 현종에 의해 언급되는 상황인데도 예조판서 洪命夏의 중심으로 한 서인계 신료들의 거듭된 건의로 실현되었고¹⁴⁾ 곧이어 같은 해 10월에 賜額致祭의 의식을 올리게 된다.¹⁵⁾ 이상으로 忠節書院의 성격으로 건립된 석실서원은 위에서 본대로 김상헌이 石室 은거시 왕래하였던 이경석·송시열 등 서인계 인사가 창건을 지원하였고, 사액시에는 현종 당시 예조판서로 있던 홍명하의 지지하에 ‘石室書院’의 공인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安東金氏를 비롯하여 기계유씨·청풍김씨 등 서인계 주요가문을 바탕으로 하는 이 지역 서인들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종 4년(1663) 사액된 석실서원은 그 致祭 과정에서 典禮를 어기고 감독을 태만히 하였다 하여 경기감사 吳挺一, 양주목사 閔熙 등 南人系 관료가 처벌되는 일¹⁶⁾ 에서 보듯 각 정파의 분립에 따른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安東金門은 숙종 재위 기간에 西人·南人간의 정쟁의 와중에 숙종 15년 安金의 인물인 金壽恒이 사사¹⁷⁾ 되는 등 정치적 격변을 겪게 된다. 이후 숙종 20년 갑술환국으로 남인들을 축출하고 재집권한 서인은 정치명분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파 인물을 배향하는 서원의 건

10) 宋時烈 『宋子大全』 권342. 碑 『石室書院廟庭碑』, 蓋先生既沒 而中外章甫建祠於先生舊居之傍 大江之濱 而以先生伯氏仙源先生臨亂立 用扶世教 奉神牌而右享之 蓋經始於甲午(효종 5년, 1654=필자)五月 安佑於丙申(효종 7년, 1656=필자)十二月十四日.

11) 李景奭, 『白軒集』, 卷15. 石室書院講堂上梁文(문집총간 95).

12) 『顯宗實錄』 권7, 현종 4년 8월 申丑.

13) 『顯宗實錄』 권7, 현종 4년 7월 辛未.

14) 『書院謄錄』 上, 癸卯(현종 4년) 7월 초10일, 8월 초10일조. 또한 사액 이후 石室書院에는 院生이 20인, 齋直 10명, 募軍 40명이 있었다(『京畿誌』 楊州條, 書院).

15) 같은 책, 癸卯(현종 4년) 10월 초4일. 이시기 이루어진 사액은 당시 정국의 동향과 연관하여 이해 할 수 있다. 顯宗代의 정국은 효종의 사후 西人과 南人사이에 일어난 服制 禮訟으로 양 봉당세력 사이의 긴장관계가 지속되던 시기였지만, 실제적인 정치 권력은 西人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기여서 사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이영훈 『조선후기 왕위계승 연구』, 집문당, 1998, 215-243쪽).

16) 『현종개수실록』 권9, 현종 4년 10월 己亥.

17) 『肅宗實錄』 권20, 숙종 15년 윤3월 을축.

립과 사액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양주 지역에서 이같은 서인 세력의 의도는 숙종 20년 8월 幼學 李淑이 상소하여 송시열을 양주의 道峯書院에 配食하기를 청하는데에서 처음 드러난 후,¹⁸⁾ 동년 8월 館學儒生 李箕翊 등이 재차 상소하여 도봉서원에 송시열을 享하는 것으로 실현된다.¹⁹⁾ 도봉서원은 김상헌을 제향하는 석실서원 건립 이전인 선조 6년(1573)에 창건하여 사액된 서원으로 정암 조광조를 제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서인내의 노·소론의 분파가 표면화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때문에 노론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송시열 추향사는 순탄하게 진행될 수는 없었다. 숙종 22년에 올라온 李濟億의 상소는 송시열의 도봉서원 추향을 반대하여 정국에 파장을 몰고 오게 된다.²⁰⁾ 이제역은 이 상소 이후 정배되지만 노론측의 송시열 추향 시도에 대해 당시 소론계로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있던 尹趾善이 배향에 반대함으로써 논란은 확산되게 된다.²¹⁾ 이에 대해 노론계에서는 관학 유생의 상소를 필두로 송시열의 승享의 타당성에 대한 주장과 반대론자들에 대한 공격을 가하여 끝내 入享을 관철시켰다.

양주 석실서원에서 비슷한 시기 노론계 인물인 文谷 金壽恒·老峯 閔鼎重·靜觀齋 李端相이 추배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 연유한다. 송시열의 도봉서원 배향 논의와 때를 같이하여 숙종 21년(1695) 위의 3인을 석실서원에 추배하자는 요청이 경기 유생 李世瑋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禮曹參議 李徵明이 상소하기를, …… 경기의 儒生 李世瑋 등이 故領敦寧府事 金壽恒·故判中樞府事 閔鼎重·故副提學 李端相, 이 세 신하를 楊州의 石室에 있는 先正臣 文忠公 金尙容·文正公 金尙憲의 祠宇에 배향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대개 楊州는 바로 세 신하의 故鄉이고, 세 신하의 志業과 德行은 당세에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 하니 임금이 該曹로 하여금 품지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²²⁾

위 인용문은 예조참의 이징명이 3신하를 석실서원에 추향하기를 건의한 경기유생 이세위의 상소를 윤해해주시기를 청하여 추배가 결정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징명은 李端相의 문인이었고, 상소의 수창자 李世瑋(1636~?)는 병자호란시 공조판서를 역임하다 강화도에서 자결한 李尙吉(1556~1637)의 증손자로 이후 그의 후손

19) 『숙종실록』 권27, 숙종 20년 8월 정사. 配享과 並享은 제향자의 격이 다른데 宋時烈의 경우 처음 追加配享)로 나타났으나 鄭澥가 송시열의 학문과 도덕, 그리고 節義가 조광조의 그것을 그대로 이었다고 하여 享論을 펼쳤고 곧 老論의 주장으로 대표되어 결국 병향으로 낙착되었던 것이다.

20) 『숙종실록』 권30, 숙종 22년 정월 정묘.

21) 『숙종실록』 권30, 숙종 22년 정월 임신.

22) 『숙종실록』 권28, 숙종 21년 4월 신축. 禮曹參議 李徵明上疏曰 京畿儒生李世瑋等 請以故領敦寧府事 金壽恒·故判中樞府事閔鼎重·故副提學李端相 三臣 配享於楊州之石室 先正臣文忠公金尙容·文正公金尙憲之祠宇 皆楊州 卽三臣桑梓之鄉 以三臣忠業德行 爲模楷當世也 …… 上令該曹稟旨舉行.

이 老論으로 활동하게 되는 인물이었다. 또한 이 무렵은 金昌協이 숙종 15년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楊州에 은거하며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던 시기임을 고려할 때 서원 추배 상소가 올라오게 되는 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入享 결정 후 숙종 23년(1697)에 석실서원에 추배²³⁾되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석실서원에 배향된 金수항(1629~1689, 金상헌의 孫子)과 민정중(1628~1692)은 모두 숙종 15년(1689)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송시열과 함께 사사되거나 유배된 인물들이다.

민정중은 宋浚吉의 門人으로 송시열과 그 정치적 행보를 같이하였으며,²⁴⁾ 金수항 역시 金상헌을 잇는 노론계의 重臣으로 숙종대 활동하였다. 黨禍에 피해를 입은 두 인물과 다르게 이단상(1628~1669)은 노론계 내에서 학통의 일각을 이루었던 학자였다. 송준길의 문인이기도 한 그는 효종 이후 출사하지 않고 양주 東岡의 靈芝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후생을 지도하였다. 그의 문하에서 金창협·金창흠·林泳 등 유수한 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또한 제자인 金창협을 사위로 맞이함으로써 안동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²⁵⁾ 이 시기 석실서원에 추배된 인물들은 모두 정계나학계에서 노론계의 핵심으로 활동하였고, 모두 혼인이나 師承관계로 맺어진 인물들이었다.

2. 石室書院의 繼承者 金昌協

숙종대 추배를 통해 노론계 서원으로 위상을 정립한 석실서원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성격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 종전 忠節書院에서 講學書院으로의 변화가 그것인데 이는 18세기 京華學界의 학풍과 金昌協·金昌翁 형제의 학문활동에 기인한 바 크다.

당시 경화학계의 흐름은 전 시기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학문형성 과정에서 쇠퇴해가고 있는 山林 유학자의 전통 주자학을 계승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경화사족적 처지를 같이하는 서울과 그 인근의 학자를 찾아 수업하거나 家學을 계승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이같은 경향은 학문의 관심을 義理之學에서 經濟之學과 詞章之學, 또는 名物度數之學으로까지 관심을 넓혀가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

23) 『京畿誌』 第1策, 「楊州」書院條(『읍지』 10, 아세아문화사, 1985).

24) 閔鼎重이 서원에 추배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원래 민씨문중의 先山이 楊州에 있어 전대부터 출입이 있었으며(閔鼎重『老峯集』 권8, 行狀, 曾祖考(汝建)奉列大夫…行狀, “…享年四十八 歸葬于楊州平丘驛西北 鳴牛里西坐之原 從先兆也”), 또 金·閔 양가의 혼인 및 결속관계도 상당히 작용하였던 듯 하다(같은 책, 권12, 「墓表陰記」, 金昌翁 撰, “…世之知慕公者 多矣 昌翁竊自謂有所儀圖 又以兩家一體 後當同傳 故忘文之拙 而樂爲之役…”). 이같은 결속의 바탕에는 閔·金 양가의 혼인이 있었다.

〈안동김씨·여흥민씨의 혼인〉

金壽恒	昌集	女參	閔啓洙←父 : 閔鎭長←祖 : 閔鼎重	曾祖 : 光勳
昌協	女參	閔昌洙←父 : 閔鎭遠←祖 : 閔維重	(本貫 : 驪興)	

25) 宋時烈『宋子大全』 권170 神道碑銘 [靜觀齋李公神道碑銘].

이단상은 숙종 23년에 석실서원에 추배되는 이외에 동왕 28년 경기유생의 건의로 인천의 鶴山書院에 배향된다(『肅宗實錄』 卷36, 肅宗 28년 正月 癸巳).

26) 유봉학, 『연암일파의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24~55쪽.

석실서원의 학풍은 農巖 金昌協과 三洲 金昌翁의 家學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金昌協은 이단상·송시열의 門人으로 24세에 송시열로부터 장차 師表가 되리라는 칭찬을 들은 서울지역의 제일가는 제자로 특히 經學에 밝았던 인물이며, 그 동생 金昌翁은 이단상의 門人으로 경학과 詩文學에 뛰어난 학자였다.²⁷⁾ 이들 김창협과 김창흡 형제의 학문형성도 경화학계의 영향을 받아 전통 주자학의 義理之學과는 차이를 보이며 전개되었다. 이들 安金의 두 학자는 20세의 청년기에 서울 南山 아래에 은거하고 있던 拙修齋 趙聖期和 교류하므로 인해 ‘名物度數’-禮樂, 律曆, 兵刑, 山川, 官制, 食貨-를 내용으로 하는 經濟之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²⁸⁾ 이처럼 노론의 주류와는 그 경향을 달리하는 學風이 安東金門의 家學으로 형성되었다. 이같은 학문경향은 18세기 이후 노론학계에서 京鄕으로 나뉘어 진행된 人物性論爭인 湖洛是非에서 人物性不同·聖凡心不同을 주장하는 호서지방의 湖論에 대해 人物性同·聖凡心同을 주장하는 서울 근기지방의 洛論의 입장을 견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²⁹⁾

이들은 乙巳換局으로 남인이 집권하고 그 아버지 金壽恒을 위시한 西人系가 죄를 입어 축출되자 관직을 버리고 永平의 白雲山으로 낙향·피신하였다. 그중 金昌翁은 三釜淵쪽에 그리고 김창협은 백운산아래 농바위 부근에 農巖書室 3칸을 짓고 은거하게 된다. 김창협은 이후 수년간 농암서실에서 독서하다가 숙종 20년의 甲戌換局으로 남인이 물러나고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여 그의 부친이 신원되고 그 역시 호조참의로 복직할 때를 즈음하여 가족을 이끌고 선산이 있는 石室村부근의 金村으로 이사했다가 이어 그 집안의 庄土가 있던 석실서원 부근의 漢陰村으로 옮기면서 석실서원을 근거지로 하여 본격적인 강학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乙亥(45세, 숙종 21년) 11월 석실서원에 머물다. 이 때에 선생이 漢陰에 우거하며, (석실)서원에 왕래하였으니 모두 楊州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르러 서원에 계시면서 講學하니 遠近의 士子로 모인 자가 매우 많았다.

丁丑(47세, 숙종 23년) 8월 三洲에 居所를 정하다. 선생은 원래 농암에서 여생을 마칠 생각이었으나 大夫人이 京第에 계시어 省侍를 쉽게 하게 위해 근교에 거처를 마련하셨다. 또 石室書院은 江山이 수려하니 ... 드디어 (이곳에) 거처를 정하시어 편액하여 이르기를 三山閣이라 하였다. 앞에는 沙渚가 3개 있으므로 그 땅을 이름하여

27) 김창흡, 김창협의 학문에 대해서는 다음이 참조된다.

李珣丘, 「金昌翁의 學風과 湖洛論爭」, 『한국사론』36, 서울대, 1996, 105~135쪽.

28) 본관이 林川인 줄수재 조성기는 특히 삼연 김창흡에게 영향을 미쳤다(이경구, 앞의 논문 참조). 또 한 임천조씨 문중은 安金의 두 학자의 출생지인 白岳洞에 그들 집안의 본거지를 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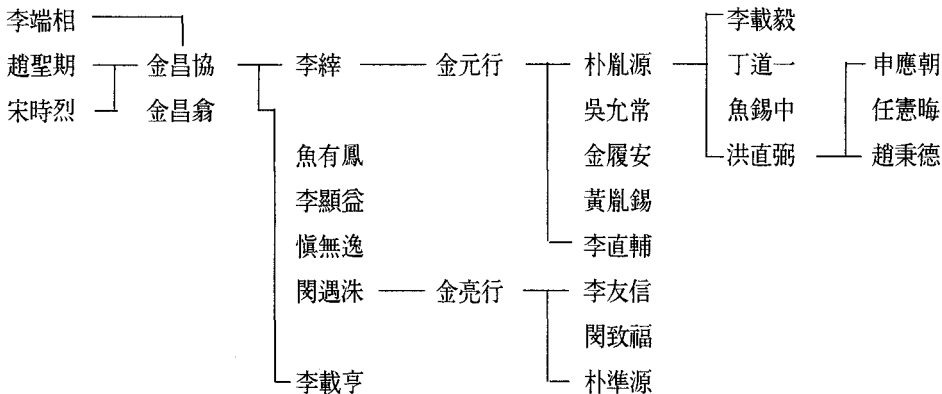
29) 유봉학, 앞의 책.

三洲라 하였다.³⁰⁾

이 때 김창협이 渼陰에 우거하며 강회를 여니 원근의 士族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하였다. 2년 후인 47세 때에 그는 농암서실에서 석실부근으로 거처를 옮겨 三山閣이라 편액하고 서원에서 강학의 임무와 함께 이곳에서 여생을 마칠 뜻을 보였다. 그의 弟 金昌翁도 京第에서 자주 石室書院에 왕래하였다. 그는 숙종 원년 그의 부친이 禮論에 연류되어 영암에 유배가게 되었을 때부터 관직 생활을 단념하고 학문 활동에 전념하였으며 특히 서울 집이 있는 근처에 洛誦樓를 짓고 이곳에서 폭넓게 서울의 名士들과 교류하였다고 한다.³¹⁾ 숙종 21년 이후 그 仲兄 김창협이 석실에서 강회를 개최하면서부터 거기에 자주 참여하였고 수시로 석실촌의 松栢堂에 머물기도 하였다.³²⁾

詩와 文章은 물론이고 退溪와 栗谷을 절충한 理氣心性說과 특히 人物性同論을 이론적으로 합리화함으로써 洛論의 대표자가 되었던 이들 형제의 뛰어난 학문적 역량은 자연히 서울 근기 지방을 중심으로 낙론을 신봉하는 큰 門人集團을 형성하게 하였다. 아래에서 김창협·김창흡 형제의 학통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圖 2〉 石室書院 중심의 學統 (참고 : 「朝鮮儒賢淵源圖」)



위의 〈圖 2〉에서 보이듯 김창협→이재→김원행으로 이어지는 학문의 계통은 석실을

30) 金昌協 『農巖集』 권35, 부록 年譜(문집총간 162책, 424쪽~434쪽).

31) 안동김씨의 서울 집은 현재 북악산(백안산) 아래 효자동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당시 安東金門의 위세가 높아지자 세상에서는 '壯洞金門'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진행된 金昌協·金昌翁 형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文士들의 학문활동을 통칭하여 '白岳詞壇'이라 부르기도 한다(崔完秀, 『謙齋眞景山水畫考』, 『濶松文華』 29, 1985).

32) "丙子(44세, 肅宗 22년) 冬 留松栢堂 石室墳菴也 時農巖先生 定居三洲 先生往來留連講論 酬唱殆無虛歲 人擬之河南兩程"(金昌翁 『三淵全集』 坤, 年譜 上, 광성문화사, 1976). 이외에 김창흡이 석실강회에 참여한 내용은 英祖 36년 양주유생이 올린 추배상소에서도 확인된다("…況此院者 昌翁之兄弟 嘗聯床而講學統誦之韻 今猶在耳…", 『승정원일기』 1180책, 영조 36년 6월 28일 壬寅條).

중심으로 이루어진 낙론적 학통의 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김창협(金昌協)의 학문과 서원에서의 강학활동은 자연히 그가 지닌 洛論的 학문 경향을 서울의 문인들에게 전파시켰으며, 이러한 활동은 석실서원이 講學書院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낙론의 근거지이자 강학서원으로 발전한 석실서원의 학풍은 서울·경기지역의 文風 및 美術系에도 파급되었다. 金昌翁의 문하에 眞境詩의 대가인 川 李秉淵과 진경산수화의 謙齋 鄭敼이 배출되어 조선의 고유색을 지닌 진경문화를 이루는 기틀로 작용하였다.³³⁾

김창협(金昌協)의 이같은 행적은 그의 사후 곧이어 書院 추배를 가능케 한 요인이 되었다. 숙종 39년(1713) 양주유생 具文沂 등의 이름으로 올라가기는 했으나 실은 김창협(金昌協)의 門人 魚有鳳이 찬했던 김창협(金昌協)의 석실서원 추배상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 등은 살고 있는 고을에 石室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先正臣 문충공 金尙容·문정공 金尙憲 선생이 병향된 장소이며 이후에 영의정 金壽恒·좌의정 閔鼎重·부제학 李端相 3臣이 配食되었습니다. (金)昌協은 尙憲의 증손자이자 壽恒의 아들이고 端相에게는 제자입니다. 또 만년에 서원의 아래쪽인 강 기슭에 집을 짓고 날마다 여러 학자와 함께 독서하고 講道하기를 10여년간 하였습니다. 그러하니 제향의 일이 이 사람보다 우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³⁴⁾

즉 김창협(金昌協)이 만년에 石室근처에서 10여년간 독서강학한 정상을 들어 그의 석실서원 배향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상소의 수창유생 구문기(1662~?)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16세기부터 양주에 기반을 가지고 있던 綾城具氏 門中의 인물로 확인되는데 김창협(金昌協)의 양주지역 門人이었다.³⁵⁾ 구문기 등의 상소를 계기로 숙종 후반기 노론 우위의 정국하에서 김창협(金昌協)은 곧바로 석실추배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3. 老·少論政爭下 金壽恒과 金昌協의 配享問題

숙종대에 양주의 노론계 서원이자 강학서원으로 다져진 석실서원의 위상은 경종년

33) 崔完秀, 『謙齋眞景山水畫考』, 『澗松文華』 21·29·35 참조. 또한 鄭敼과 安金과의 관계는 다음 사료가 참조된다. “庚寅(英祖 46년=필자) 6月 初4日 昨日金丈言 … 吾壯義洞中 有鄭謙齋散 以其門地 則古族也 以其文學 則儒素也 蓋自易象星曆丹青 無不旁通 今世但知其爲畫苑中人耳…”(黃胤錫, 『齋亂藁』 3책, 권15, 213쪽).

34) 金昌協, 『農巖集』續集 卷4, 請配享石室書院疏(문집종간 162책 572쪽).
…臣等所居之鄉 有所謂石室者 卽 先正臣文忠公 金尙容·文正公 金尙憲 並享之所 以後以領議政 金壽恒·左議政 閔鼎重·副提學 李端相 三臣 配食焉 昌協 卽尙憲之曾孫 壽恒之子 而於端相 則有師生之義焉 又於晚年 築室書院之下 江岸之上 日與群學子 讀書講道 幾至十有餘年 則俎豆之事 不可不先之於斯…

35) 구문기(1662~?)는 본관은 綾城으로 별다른 관력은 보이지 않지만 숙종 39년(1713) 생員試에 급제한 것이 확인되며 楊州에 거주하였다(CD『사마방목』). 그는 중종부마 滸의 5대손으로 이 가문은 16세기 초반에 양주에 입향하였다.

存裕 — 壽永 — 希環 — 淳 — 思願(이하 생략)
楊州入鄉 — 縣監 — 思孟(이하 생략)
信環 — 滸 — 思 — 언 — 秀俊 — 徵 — 文沂
中宗駙馬 武科

간에 들어오면서 한차례 파란을 겪게 된다. 그 단초는 숙종 후반기의 정국동향에서 이미 배태되었다. 갑술환국이후 노·소론간에 내재해 있던 갈등은 숙종 41년의『家禮源流』시비와 이듬해 丙申處分으로 명분을 상실한 소론이 정국에서 배제되고 老論이 專權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어 숙종 43년 숙종의 후계자 문제를 놓고 왕과 노론계 좌의정 李顯命사이에 이루어진 丁酉獨對와 世子代理下命은 노쇠한 숙종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일반의 의혹을 깊게 하였다. 이제 斯文是非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던 노소론간의 대립이 왕위계승 문제를 둘러싼 忠逆의 시비분쟁으로 변질된 것이었다. 이 시기 노론은 숙종의 독대에 의한 특별 부탁이라 하여 세자의 대리청정을 보필하는 한편 延·延齡君 두 왕자를 보호하였고, 소론은 노론이 그들에게 불리한 왕세자를 교체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하에 노론을 감시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景宗이 즉위하자 노소론간의 이러한 의심과 상반된 이해관계는 정쟁의 형태로 표면화하여 老論이 일시에 축출되는 換局으로 결말이 났고(이를 辛丑獄이라 함), 이와중에 왕세자(경종) 대리시부터 세자에게 불리하게 움직였고 임금이 된 다음에는 모해하려 했다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金昌集·李顯命·李建命·趙泰采 등 노론 4대신을 위시한 60여명의 노론계 인물이 사사되거나 목 베어 죽임을 당하였다.(이를 壬寅三手獄이라 하며 앞의 辛丑獄과 합쳐 흔히 辛壬獄事라 부름)³⁶⁾

경종 원년이후에 본격화 된 노론에서 소론으로의 정치권력의 급격한 교체는 곧바로 楊州 지역의 노론계 서원에도 그 여파를 몰고 왔다. 먼저 경종 3년 노론을 逆으로 판정한 상태에서 올라 온 관학 유생 金范甲과 四道儒生 등의 상소에서 송시열의 출향사를 거론하자, 집권 소론 세력은 宋時烈을 도봉서원에서 출향토록 하였다.³⁷⁾ 송시열이 도봉서원에 입향될 때 公論을 수합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송시열의 인물이나 행적 자체가 조광조같은 도학자에 竝享되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것이 출향의 명분이 되었다.³⁸⁾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쟁의 과정에서 승리한 소론은 반대당의 종장인 宋時烈을 공격함으로써 자파의 정치 명분상의 우위를 확보하려 하였던 것이다.

경종년간의 소론정권 하에서 석실서원에 가해진 박해 역시 도봉서원에서의 송시열의 위패축출과 같은 정치적 이유에서였다. 송시열을 黜享시킨 직후 소론계의 장령 尹會가 먼저 석실서원의 제향인물 중 金壽恒과 金昌協을 문제삼고 나왔다. 持平 沈垞에 의해 다소 보완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楊洲의 石室書院은 바로 文正公 金尙憲을 제향하는 곳인데 지난번에 凶黨들이 金壽恒과 그 아

36)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추진」 『진단학보』 56(이태진편,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1986 재수록) 참조.

37) 『景宗實錄』 권11, 경종 3년 3월 壬辰.

38) 『경종수정실록』 권4, 경종 3년 3월 임진.

들 金昌協을 외람되게도 追配하는 列에 끼이게 하여 사람의 놀라움과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역적 金昌集의 아버지와 그 아우가 지금 살아 있다면 마땅히 連坐의 律을 배풀었을 것인데, 賢祀에 從享까지 하여 나라의 법을 무너뜨리고 儒宮을 욕되게 하였으니 여기에 臺啓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壽恒 父子는 말할만한 名節과 學術도 없거니와 이제 昌集이 역적으로 잡혀 죽임을 당함에 이르렀은즉 더욱 從享의 列에 그대로 둘수 없사오니 청컨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곧바로 黜配하도록 하소서³⁹⁾

본래부터 김수항과 김창협이 서원에 追配될만한 도덕과 忠節이 없는데에도 凶黨(노론)의 괴수였기에 黨人에 의해 追配된데 불과할 뿐 아니라, 이들이 신임옥사의 원흉으로서 죽임을 당한 김창집의 아버지와 동생이어서 더욱 불가하므로 출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김수항이 송시열과 함께 노론의 영수이다가 己巳換局때 남인의 정치적 보복으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평소 그에게 비판적이던 소론계 인사들도 그의 죽음을 동정하여 애초에 석실서원 추향때 반대하지 않았고, 특히 김창협은 당대의 碩學으로 이름난 데다가 석실서원에서 오랫동안 講學활동을 벌려 講學書院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던 관계로 추배가 당연시되어서 별다른 물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아들과 형되는 김창집이 숙종말 영의정으로 노론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소론공격에 앞장선 데다가, 경종초 이른바 王世弟(후일의 英祖)책봉과 세제에 의한 代理聽政을 추진한 중심인물이어서 소론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아 辛壬獄事에서 역모의 원흉으로 몰려 사형을 당하고 나자 이제 새롭게 김수항과 김창협의 석실서원에서의 제향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尹會·沈垞에 의한 김수항·김창협의 黜享論은 일차적으로 노론계 인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석실서원이 道學政治의 표상인 조광조 제향의 도봉서원과 마찬가지로 大明義理의 상징인 김상헌을 모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비록 都城밖에 위치하기는 했지만 京中士大夫 및 士林이 모이고 講習하는 淵藪요 京中輿論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진원지로서 노론측의 정치적 기반이 되고 집권명분을 합리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소론의 공세는 단순히 김수항·김창협의 서원 출향에만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사람 위패의 출향이 이루어진 뒤에도 유형 무형의 압력이 가해졌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그 장래의 형세가 크게 위축될 것임은 쉽게 짐작이 가지만, 그러나 석실서원의 수난은 오래가지 않았다. 1년도 못되어 경종이 薨去하고 김창집 등의 노론계가 목숨을 바쳐가며 보호했던 왕세제가 임금의 자리(영조)에 오르게

39) 『景宗實錄』 권12, 景宗 3년 6월 庚戌.

되었기 때문이다. 소론이 쫓겨나고 노론 정권이 들어섰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노론 4대신의 伸冤에 따라 김창집의 죄도 씻겨 없어지고 오히려 그 충절에 대한 장려로 四忠書院에 제향되기까지 하였다.

노론의 집권으로 석실서원에 대한 박해가 이미 없어졌겠지만 이제 김창집이 신원·포증됨으로서 그로 인해 출향되었던 김수항·김창협 의 再入亭이 추진됨은 당연하였다. 그리하여 乙巳處分으로 辛壬獄을 誣獄으로 판정하고 卹罪 및 卹化자를 일체로 신원하여 노론 명분의 정당성과 집권의 합리화를 다져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먼저 도봉서원의 송시열 復享이 이루어지고 이어 楊洲幼學 李志沆 등의 復享요구 상소와 예조에서 이를 동의하는 형식을 빌어 김수항·김창협의 석실서원 제향이 회복되었고⁴⁰⁾ 이같은 정국의 추이 하에 노론 4대신—金昌集·李 命·李健命·趙泰采—의 復官에 맞추어 이들을 배향하는 四忠書院의 건립과 사액이 이루어졌다.⁴¹⁾

영조대에는 즉위초에 노론계 서원에 대한 복설과 사액이 몇차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동왕 17년의 사우 蠲絶을 단행한데서 보듯 이후 시기는 탕평책의 추진과 함께 서원의 건립이나 사액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이같은 서원에 대한 정책은 正祖年間에도 이어졌다. 영·정조년간 석실서원에 金昌翕을 추배하자는 건의가 계속되었지만,⁴²⁾ 서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책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경종년간 석실서원에 붙어닥친 정치적 풍파는 영조의 즉위와 함께 해결되었지만 앞 시기 석실서원과 서울 사이를 오가며 이루어졌던 講學은 이후 한동안 계속되지 못하였다. 신임옥으로 金昌集이 사사되고 金昌翕이 이에 대한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는 등 安金門中내에 흉사가 연이어 일어났기 때문이다.

4. 學文의 繼承과 書院의 運營

경종년간 소론의 박해 이후 침체하였던 석실서원을 활발한 강학활동을 통해 다시 진흥시키고, 호론에 대항하는 낙론의 본거지로서 면모를 일신케 함으로써 그 학문적·정치적 위상을 새롭게 확립시킨 인물은 김원행(1702~1772)이었다. 그는 본래 김창집의 손자였으나 김창협의 아들인 송겸에게로 출계함으로써 김창협의 사손이 되었고⁴³⁾ 그 조부의 제자로서 영조전반기 낙학의 대표였던 이재의 문인이 되어 가학을 계승하였다.

40) 『英祖實錄』 권3, 英祖 원년 정월 庚戌 및 2월 庚午.

書院謄錄 第 5冊 英祖朝 乙巳 2月 初3日. 京畿楊洲幼學李志沆等上疏

41) 『英祖實錄』 권10, 英祖 2년 11월 戊申.

42) 金昌翕의 석실서원 추배 상소는 다음이 참조된다.

『英祖實錄』 권95, 英祖 36년 4월 壬寅 ; 같은 책 권100, 英祖 38년 11월 戊辰.

『正祖實錄』 권2, 正祖 卽位年 11월 戊寅. 특히 승정원일기 제 1180책 영조 36년 4월 28일 壬寅條에 실린 김창집의 석실서원추배요구상소에는 楊洲幼學李修亨 등 78人의 명단이 나와 있다.

김원행에게 石室서원은 김상헌 - 김수항 - 김창협으로 이어지는 3대가 제향된 매우 자랑스런 장소요, 은거하여 학문을 연구하는 터전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서원부근에 있는 조부 창협의 거처였던 미음의 삼주삼산각에 거주하면서 제생들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였고 家學인 洛學을 이론적으로 심화시키고 체계화했으며, 마침내 만년에는 석실서원의 원장직까지 역임하였다.

여기서 잠시 미호에 의해 강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영조 후반기(1750~60年代) 당시 석실서원의 주변 風光과 空間구성이 어떠하였는가를 보기로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농암 김창협의 문인으로 일찍부터 그 거처였던 漢陰의 三洲三山閣과 이 석실서원을 자주 찾았으므로 이 일대의 풍광에 익숙하였을 것임에 분명한 겸재 정선이 그린 「石室書院」·「三洲三山閣」의 그림과 漢湖의 門人이던 顧齋黃胤錫이 석실서원에 출입하면서 남긴 기록(顧齋亂藁에 수록되어 있음)이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우선 겸재의 「석실서원」그림(그림참조)은 겸재가 영조 16~17년(1740~1741)사이에 그린 것으로 「경교명승첩」속에 들어가 있는데 겸재 정선의 畵風을 연구한 최완수는 이 그림에 나타난 석실서원의 전경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오른쪽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 서원말이다. 그 중에 숲속에 둘러싸인 기와집들이 석실서원이고 그 아래 초가집들은 서원을 수호하기 위해 고용된 齋直이나 募軍들이 사는 집일 것이다. 「楊洲邑誌」석실서원 항목에 의하면 院生 20명, 재직 10명, 모군 40명의 규모였다고 한다. 오른쪽 언덕에 있는 기와집 한 채는 淸陰家の 別墅인 듯하다. 지금 가 보아도 미사리쪽 강상에서 바라보면 바로 이렇게 보인다…… 전경을 연초록빛 일색으로 설계하여 초봄의 새뜻한 맛을 강조하였는데, 겸재의 그림에서 드물게 표현되는 田畠의 표현이 있어 가능한 사실성에 충실하려 했던 그림인 듯하다. 평구역말로 이어지는 이패리 일대의 논밭이다”

영조 35년 석실서원을 처음 방문하였던 황윤석 또한 서원주변의 江山風景이 한강 위에서 유람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현재도 이곳에는 나룻배가 닿는 나루터가 있으며 遊客을 상대하는 음식점이 몇 집 있어 이 일대가 경치좋은 유람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본래 서원은 사람의 덕성함양과 修己를 위해 사람들이 들끓는 번잡한 곳을 피하여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심산유곡이나 물가에 세워지게 마련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히 주변의 풍광이 수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오늘날 현존하는 서원들을 찾아보면 금방 확인된다. 석실서원은 이와같이 경치 좋고 뱃길을 이용해 내왕이 편리하였던 곳에 위치하였던 것이다.

43) 〈金元行 중심의 家系略圖〉
 金壽恒 — 昌集 — 濟謙 — 省行
 昌協 — 系 — 崇謙 — 系 — 元行(出)
 元行

점재의 그림에서 遠景으로 드러난 석실서원 건물의 규모나 배치상황 등의 공간구성은 황윤석이 남긴 기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전라도 興德출신으로서 성리학에는 물론 物名度數之學·象數學·天文學 등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 실학자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기도 하는 頤齋黃胤錫은 영조 35년(1759), 그 나이 31세 때 渼陰으로 金元行을 찾아가 師弟의 義를 맺고 석실서원에 유숙하면서 問業하기도 하고 때로는 김원행을 모시고 서원에서 講學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그런만큼 석실서원에 대해 상당히 잘 알았을 것이며 실제로도 그가 남긴 日記인 頤齋亂藁에는 석실서원 관계 기사가 적지않게 보인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서원의 건물구조라든가 배치에 관한 기록만을 따로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 1) 祠堂은 서원의 위쪽에 위치하였다. 사당에는 제현들의 位牌가 봉안되었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단 이것은 영조 32년의 기록이므로 숙종 39년에 追配되었던 金昌協까지만 들어가 있다. 金昌翁·金昌集·金元行·金履安·金祖淳의 위패는 후일 哲宗때 들게 된다) 主壁은 2위로 仙源 文忠公 金尙容은 西上에 淸陰 文正公 金尙憲은 東次에 제향되었고, 東西壁에는 4위가 있는데 文谷 文忠公 金壽恒은 西一에 老峰 安貞公 閔鼎重은 東一에 靜觀齋 文貞公 李端相은 西二에 農巖 文簡公 金昌協은 東二에 제향되었다.⁴⁴⁾
- 2) 사당의 옆에 仙源 金尙容의 影幀을 봉안한 影堂이 있었다.⁴⁵⁾
- 3) 石室書院廟庭碑는 서원의 앞 마당에 있었다고 하였다. 이 비는 尤庵 宋時烈이 짓고, 谷雲 金壽增이 쓴 것이다.⁴⁶⁾
- 4) 서원에서 강생들 교육의 장소로 東講堂이 문헌에 나타난다. 맞은 편에 西講堂의 존재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문헌에는 확인할 수 없다.⁴⁷⁾ 東講堂은 院生의 교육 뿐 아니라 서원을 방문한 사족의 임시거처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講堂 南房·北房에서 숙식하였다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⁴⁸⁾
- 5) 강당과 함께 원생들의 숙식처인 東齋의 명칭이 나타나며 이로 보아 西齋 건물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⁹⁾

44) 黃胤錫, 『齋亂藁』 1冊, 卷2, 164쪽下. (英祖 32年 閏9月) 二十九日 甲子猶雨 曉頭與溫叟及吳生 祇謁廟庭 主壁二位 仙源文忠公西上 淸陰文正公東次 而東西壁四位 則文谷文忠公西一 老峰安貞公東一 靜觀齋文貞公西二 農巖文簡公東二 廟宇傍影堂 乃仙源影幀奉安處也

45) 위와 같음.

46) 같은 책, 1책, 권2, 164쪽上. (英祖 32年 윤9월) 二十八日癸亥…… 掌令丈曰 此處無可歇泊 先祖書院 正在近處 但循江干山阿以往 則不過數里許(字缺)數…… 胤錫兄弟 下馬而徒 既至院中 則江山風景 最好勝覽 爲江漢上遊勝地 祠宇肅肅 庭有大碑尤庵撰 谷雲書八分 遂宿是夜風雨達曉.

47) 같은 책, 1책, 권2, 178쪽. (英祖 32년 10월) 初六日 乃發渼陰行…… 又自曰日已夕矣 欲向書院歇泊 因爲逗留承誨之地 遂與大來及諸人 辭退至院 則江山依舊 秋 颯然 忽憶去年 兄弟同來時也 院中吳生 有舊面 頗極款款 前此與大來 一致款於吾云矣 夜間明燈 觀淸陰集栗谷外集 及儀禮漁父合部 十七篇 與達源 偕宿於東講堂.

48) 같은 책, 1책, 권4, 360쪽下. "(英祖 40년 5월) 20日…… 是時日已夕矣 拜辭歸院 夕飯 與克之同宿講堂北房" : 같은 책, 1책, 권4, 362쪽上, "5月 21日……侍話有頃 辭歸 是夕與洞玉同宿講堂南房."

49) 같은 책, 1책, 권4, 342쪽下, "(英祖 40年) 4月 初5日 丙戌 天又連雨 滯坐東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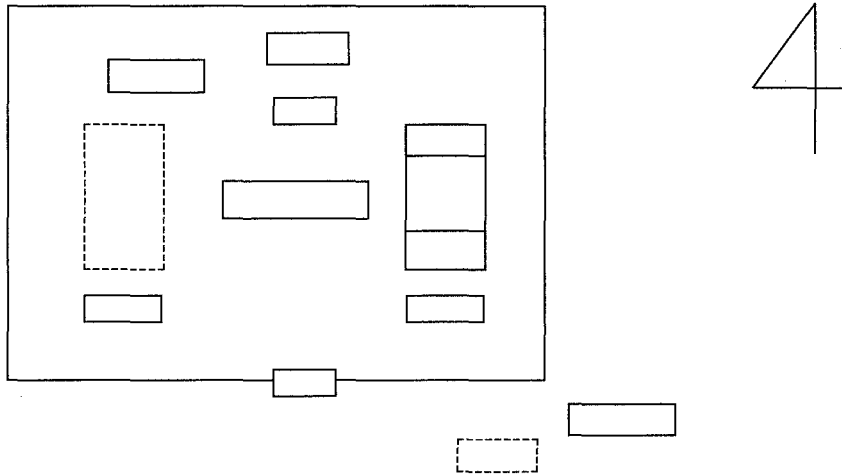
6) 院門밖에는 시문을 짓거나 대답하는 장소로 遠香亭이 있었다.⁵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아 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은 크게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祠堂과 교육을 실시하는 講堂 및 원생이 숙식하는 東齋와 西齋의 세가지로 이루어진다. 이외에 책을 보관하는 書庫와 제사에 필요한 祭器庫·서원의 관리자인 원지기의 거처이면서 유생의 식사음식을 준비하는 庫直舍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같은 일반적인 서원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위의 황윤석의 기록들을 종합하여 석실서원의 규모와 건물배치 등 공간구성을 복원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石室書院 空間構成 復元圖(1750년대)〉

※ 점선 표시는 추정을 나타냄



위와 같은 공간구성이 반드시 溪湖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강화활동의 터전으로서 그와 그 문인들에 의해 정비·보완되어 비로소 완전한 규모를 갖추게 된 것만은 사실이라 할 것이다. 당시 노론 학계내에서 진행되던 湖洛論爭에서 洛論的 입장을 유지함으로서 김창협·김창흡 이래 이어져 내려오던 家學의 전통을 발전시키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석실서원은 金元行을 중심으로 한 낙론계 인사들의 결집처 역할을 하였고, 이후 제자들은 洛論을 계승하거나 北學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김원행 사후에도 석실서원의 강회는 계속되었다. 김원행의 아들인 履安은 이전부터 석실에서 제생과 교류하였으며 그의 부친의 文集을 秋水軒⁵¹⁾에서 교정하면서 머물렀다한다.⁵²⁾ 또한 손자인 麟淳 역

50) 같은 책, 1책, 권3, 209쪽下. (英祖 35年) 3월 14일…… “夕間投宿石室書院 是日設講未罷之 故先慈院 門外遠香亭 月出時入宿東講堂.”

51) 秋水軒은 金元行이 거처하던 곳이다.(黃胤錫, 『顯齋亂藁』 2책 10쪽)

52) 金履安, 『三山齋集』 卷8, 題跋, 「書貞夫人金氏遺事後」, “庚子季夏 與李善長 對校先集于秋水軒…”

은 학풍을 지닌 石室은 영조 말년 「華陽書院廟庭碑文」을 둘러싸고 호론과의 갈등을 겪게 된다. 그 갈등은 영조 45년(1769) 김원행이 화양서원장 역임시 權尙夏의 문인으로서 湖論을 주장하던 屏溪 尹鳳九가 생전에 지은 묘정비문의 내용이 湖論의 주장은 언중에 합리화하려 한 것을 보고 이를 자연시킨데에서 발단된 것이었다. 이 때의 文字是非는 처음에는 단순히 學統내의 주도권 다툼의 성격으로 시작하였다가 이후 점차 정치논쟁으로 변질되어갔다.⁵³⁾

영조 말년의 정계는 노론세력의 집권하에 같은 戚臣인 金漢蓐와 洪鳳漢이 권력을 다투는 형세를 보였다. 영조 계비 貞純王后의 친정아버지로 國舅의 자리에 있던 김한구는 金龜柱·金漢祿 등 같은 집안인 경주김씨 일족과 함께 하나의 척신당을 이루며(세상에서는 이를 南黨이라 불렀다) 湖學의 영수이던 南塘 韓元震에 학맥을 연결함으로써 湖論系 인사를 끌어와 우익으로 삼아서, 사도세자의 장인이자 王世孫(후일의 正祖)의 외조부였던 洪봉한과 그 추종세력(이를 北黨이라 불렀다)을 공격하였다. 이에 洪봉한의 복당계는 호론과 대립하던 낙론을 정치적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하였고 마침 당대 낙론의 宗匠이던 김원행과 洪봉한이 인척관계에 있었음으로 인하여 그 접근은 쉽게 이루어졌다.⁵⁴⁾ 그리하여 세상에서 석실서원은 扶洪派의 주요 거점으로 인식되게 된다. 人物性同異論에서 비롯된 호락논쟁이 이제 정치세력간의 정권경쟁을 합리화해주는 이념논쟁의 성격까지 띄게 되었으며 석실서원 역시 바로 그런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 축에 서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제 석실서원은 당시의 世評대로 단순한 안동김씨 집안의 사당에만 그치지 않고 김상용·김상헌 이래의 충절을 앞세워 안김세도정권의 존재명분을 뒷받침해주는 정권유지 기반이 된다(순조 이후에 이르면 호락논쟁이 효용성을 상실함으로써 洛學의 전통을 계승하는 석실서원의 강학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이것은 안김세도가 극성기에 이른 哲宗년간 金昌翁·金元行·金履安·金昌集·金祖淳 등⁵⁵⁾ 안김집안의 學者는 물론 黨禍를 입었다하여 忠節人으로 현양되는 인물까지 한꺼번에 追享된데서 알 수 있다.

석실서원의 門中の 성격의 강화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의 일면을 당연히 반영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그것이 정치적 측면으로 나타난 대표적 예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53) 權五榮, 「18세기 湖洛論辨의 爭點과 그 性格」, 『조선시대 사회와 사상』, 1998.

54) 이재난고, 제4책 184쪽, 권20. 甲午(영조 50년) 8월 초8일. 是是時 日伯能(洪樂舜임. 김원행의 사위)

言 華陽碑事 與夫心性同異之論 何如於洪金兩戚 私黨之分乎 且漢上平日 固非斥洪 亦非扶洪 只局外傍觀 而已 今金漢祿一邊 自稱南塘門徒 挾一金龜柱 欲 洪相一邊 其意專在於傾軋 而乃假華陽碑事 與夫心性 同異之說 先攻漢上 謂以扶洪 而金相致仁金尙默一隊 從而合之 主謀者金漢祿也 和應者洪量海也 齋續稿, 권7. 記湖洛二學始末. 抑竊惟念洪鳳漢金龜柱二戚之構禍也 自命湖學者及與洪有私怨者 舉附於龜柱 以殺洪爲期 而鳳漢亦不自量 徒以家世之誼 婚姻之故 有怨遙假先生以爲重之意

55) 김창홍·김원행·김이안의 三人은 철종 8년 5월 10일(일성록 123책)에 우의정 趙斗淳의 진언으로, 김창집·김조순은 같은 해 11월 29일(일성록 124책) 각기 추배가 결정된다.

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안동김씨 세력이 한번 실세하자, 비록 대원군에 의해 훼손되기는 했으나 다른 서원이 얼마후 다시 모습을 회복하던 것과는 달리, 그 건물지의 흔적마저 찾지 못할 정도로 그 자취를 남기지 못했던 것이다.

Ⅲ. 思想과 文學觀

1. 思想 - 栗谷學派의 批判的 繼承者 洛學派

1). 學問的 師承關係

농암의 학문적 사승관계를 살펴보려면 그 당시의 학문적인 경향을 알아야 할 것이다. 16세기 중엽에 이황(李滉 : 1501~1570)이나 이이(李爾 : 1536~1584)를 비롯한 일련의 주자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조선 주자학의 이론적 체제가 정립되 갔다. 이후 조선 주자학은 이황을 지지하는 퇴계학과와 이이를 옹호하는 율곡학파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주자학의 내부적 모순을 좀더 정형화하고 정교화되는 과정이었다. 그 정점에 달한 것이 송시열(宋時烈 : 1607~1689)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송시열을 고비로 율곡학과 내부에는 정치적으로는 노론과 소론으로, 학문적으로는 호서(湖西)와 낙하(洛下)학파로 분화되었다.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호학과와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낙학로 분화되는 것이다. 권상하로 시작되는 호학파는 이이 및 송시열의 학설에 충실했던 반면에 김창협에서 비롯되는 낙학파는 송시열에 대한 심정적 동조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론 측면에서는 자유로운 입장을 보였다. 그리하여 그들 학맥의 근원인 이이 철학 이론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용보다는 비판적 수용의 자세를 취하였다.

장지연은 <<조선유교연원>>에서 <호락학파의 분열>에서 이간을 지지한 낙하(洛下)의 학자들의 학문을 낙학(洛學)이라 하였고, 한원진을 지지한 호중(湖中) 학자들의 학문을 호학(湖學)이라 하였다. 이들의 쟁점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을 둘러싼 논쟁으로 김창협 등 낙학파는 인물성동론을 주장한 반면 호학자들은 인물성이론을 제시하였다. 한원진과 이재 논쟁은 낙하학자들이 이재의 이론(인물성동) 지지함으로써 나누어 지는 것이다. 특히 낙하학자들은 지역적 동일성과 학맥의 수수관계를 넘어 이론적으로 하나의 학파로 결속시키는 기능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한원진과 이재간의 인물성동의 이론은 호학은 권상하에서 시작하여 한원진이 계승하였다면, 낙학은 김창협으로 계기가 되어 이재가 지켰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연원은 17세기 낙하지역의 학문적 경향은 송시열에서 권상하로 이어지는 정통 율곡학과와 철학이론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낙학파계열에서는 홍대용(洪大容 : 1731~1783)과 박지원과 같은 일련의 북학자들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즉 낙하지역은 인물성동론이 논쟁되기 이전부터 나름대로의 특성을 키워왔다는 것이다.

낙학의 근원자 김창협이라는 것은 별다른 의견은 없다. 18세기 이후의 낙학 학자들의 학맥이 김창협과 김창흡으로 귀결된다. 김창협은 학문적으로 송시열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의 부친이 노론의 핵심인물이었고, 그의 형 김창집도 역시 노론 핵심인물이라는 데서 송시열과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으며, 실제 24세 이후부터 인간적인 교류가 있었다. 그러나 이론적인 면에서 리기심성론은 송시열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김창협의 학문적인 스승은 장인인 이단상이다. 하지만 이단상이 학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는지는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에게 영향력을 미쳤다고보는 것은 그와 교류한 조성기와 임영으로 이들은 기호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율곡의 학설에 구애되지 않고 독자적인 리기심성설을 전개한 사람으로 17세기 대표적인 절충파 학자로 꼽힌다. 이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학문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리기심성론의 영역에서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하지만 이이를 정점으로 하는 기호학과 의 일원이면서 이황의 이론을 지지하기도 하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2). 理氣論

주자학에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을 리와 기로 설명한다. 하지만 리와 기를 해석하는 방식이나 설명은 각자 달리하고 있다. 이황에 비하여 이이는 리와 기를 한 사물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소이는 리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기발리승일도설”이다. 김창협 역시 이이 계열의 학자로 이이의 학설을 옹호하면서 리가 반드시 기를 타야만 한다는 것은 리가 어떤 형태로든 기에 의존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농암은 리의 무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리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이황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즉 “사단은 리의 발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다.”를 “사단은 리를 위주로 하여 말한 것이나 리가 그 가운데에 있고, 칠정은 기를 위주로 하여 말한 것이나 리가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해석하였다.⁵⁶⁾ 즉 농암은 기와 선악의 관계에서 이이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의식적으로 리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그가 기발일도설이나 리의 무위성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이의 학설을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이 및 송시열의 이론을 고소하는 호서의 학자들과는 달리 친이황적인 경향을 보이기까지 하면서 리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이후 낙론의 기본 입장으로 정착된다. 18세기 이후 낙학의 인물성동론이 등장하는 이면에는 바로 김창협의 리기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3). 人物性論

농암의 인물성론은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인물성이론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것은

56) 김창협, 『농암집』, 「사단칠정설」, 798쪽.

나이 28세때 송시열에게 질의한 “上尤齋中庸疑義問目”에 근거한 것이다. 즉 사람과 사물은 똑같이 하나의 리를 얻어서 생겨나지만 그 리가 이미 성이 된 이상 기의 통합과 막힘에 따라서 그 성은 치우침과 온존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물은 五性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하고 기껏해야 오성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원진과 비슷한 논리이다.

농암의 인물성론을 정리하면 두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편전에으로 말하면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 그러나 둘째, 리로써 말하면 만물의 성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 이 두가지는 농암이 28세부터 죽기 1년전에 57세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견지했던 입장이다. 즉 인물성에 대한 농암의 이해는 편전에 의한 차별성과 리에 의한 통일성이라는 이중구조였다. 그런데 28세대 이루어진 “상우재문목”을 제외하면 그 강조점은 후자에 있는 것이다. 사물을 인식할 때 중요한 것은 사물에 오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구별된다는 점에 있지는 않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물에 천명의 성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만물의 성이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천명의 성이 기품에 따라 편전의 차이가 생기고 그 편전의 성을 그 사물의 성이라고 한 사물의 진정한 가치는 그 편전의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의 근원, 즉 천명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원진과 다른 점이고 낙론의 인물성론으로서의 경향이 농암의 인물성론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던 것이다.

4). 學文의 繼承

농암의 이후의 학문적 계승은 먼저 동생인 김창흠(金昌翕)과 문인 어유봉(魚有鳳)이다. 농암의 리기설과 사단칠정설과 같은 정교한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낙학의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두 사람은 인물성동론을 지지함으로써 낙학의 방향성을 제시한 인물이다. 또한 농암과 학문적 교류가 깊었던 이희조(李喜朝) 등이 있다. 특히 이희조는 이단상의 아들로 어린시절부터 교류가 많았다. 이재(李縉)는 농암의 문인이라 할 수는 없으나 노론 명문가로서 농암이후 낙학의 거두로 활약하였다. 낙학이 차지하는 위치는 첫째, 그가 권상하의 문인이자 호학과이론의 적극적인 옹호자였던 윤봉구에 맞서 낙학파의 입장을 변호하였다는 점과, 그의 문하에서 낙학의 쟁쟁한 이론가가 배출되었다는 점이다. 즉 김원행, 박성원, 송명흠, 임성주 등이 그들이다. 이재의 문인들은 스승의 성에 따라 인물성동론을 지지하였다. 김원행은 낙학 계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농암의 양손자로 석실서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며, 석실서원을 낙학의 요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학문적 사승관계에서는 김이안, 심정진, 오윤상, 황운석, 홍대용, 박윤원 등 다양한 학문적 성향의 사람들이 수학하였다. 즉 18세기에서 19세기 중엽 서울 주변에 거주함과 동시에 당시의 권력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山林의 지위를 유지해 나갔던 노론계열의 정통학자들은 그 학문적 계보가 가깝게는 김원행으로, 멀게는 김창협으로 소급되는 것이다.

낙학에는 두가지 대립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것이 있다. 18세기이후 조선의 정치와 학문을 주도한 것이 낙학과였고, 반면에 그 주도적인 흐름에 편승하기를 거부했던 북학사상 역시 바로 낙학의 전통에서 나왔다. 주자학적인 전통과 북학사상의 공존 또는 대립이 바로 18세기 이후 낙학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낙학의 이중얼굴은 정권을 이끌던 세력들의 체제 유지적인 성향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라는 이중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2. 文學論

농암이 활동하던 시기는 선조대에 蔚興하던 문학이 점차 탈바꿈하여 18세기 새로운 문학의 지평을 넓혀가던 과도기로 변화하던 시기이다.⁵⁷⁾ 특히 농암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에 내놓았던 권34 雜識를 중심으로 비평론 등을 근거로 볼 때 기왕의 문학에 대한 문제를 새로이 보려는 노력이 보인다. 농암은 문학에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唐詩와 宋詩의 문제, 명대문학의 문제, 자신의 감정을 중시하는 개성주의 시창작 원리로 삼는 문제, 후기에 일어난 古文에 대한 관신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첫째, 문학적 배경으로는 가계의 계승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청음과 부친 김수항 등 노론 정치가로 이름을 치의 떨쳐던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당쟁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벼슬을 멀리하고 학문과문학에 전념하였다. 그는 이 시기를 위기 시대로보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속에서 그의 작품적 정신과 비평론에 남아 있는 것이다.

둘째, 농암의 시편은 분수를 지키며 심성을 도야하고 깨끗한 선비정신을 다잡는 모습을 보인다. 농촌의 생활을 접하고 그 속에서 인간애를 발견하였다. 관직생활의 고역을 회상하고, 자신의 질병에 대한 괴로움, 시절을 통탄하는 감정을 표출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돌아간 이에 대한 아픔을 형상화하여 인간적인 모습이 두드러지는 시를 지었다.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

셋째, 산문은 雜記類, 哀祭類, 碑誌類 등을 있는데, 특히 농암은 잡기류와 루정기가 많다. 그 중에서 “東遊記”가 걸작으로 분류된다. 단순한 산수의 아들다움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작자의 마음에 느낀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직접 가본 듯한 느낌을 준다. 隱求菴記는 산림에 묻혀 학문을 하던 실천궁행하던 때의 작품이다. 이것은 3단락으로 나누어보면 군자의 常道와 관련된 출처관을 논리고있게 주제로 심

57) 蔡奐鍾, 『農巖 金昌協 文學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을 정리한 것이다.

화시키고 있다. 不知菴記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현실대응을 밝혀 놓은 것이며, 三一亭記에서는 三才一理에서의 取名의 내력을 통하여 천지자연의 현상과 이치와의 이해를 도모하는 농암의 사물관이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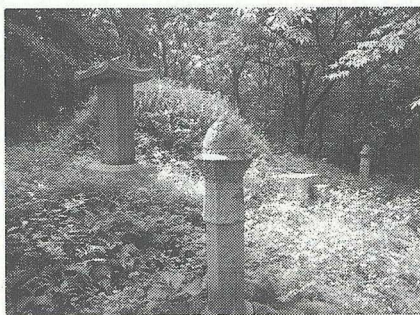
애제류 중에서 祭亡妹文은 특히 편장을 달리하며 그 나뉘는 사이에 悲夫悲夫痛矣痛矣라는 어구를 삽입하였다. 망매의 사행을 나누어 놓고 그때마다 이 어구를 삽입하여 단락과 단락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비지류는 농암 古文의 요체가 되는 것이다. 六弟墓誌銘은 六弟의 위인됨을 간단히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명을 통하여 볼 때 簡嚴法을 효과적으로 실현했던 작품으로 보인다.

넷째, 비평론에서 조선조내에 지속되었던 學詩의 규범을 새로이 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존의 학당에 대한 편협성에서 벗어나 전범을 따로 두지 않았다. 독창성을 겸비한 창작과정의 심화로 최고의 미적 경지를 획득한 개성화된 시를 중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의 積習을 씻어내고 處明靜쟁一정한 상태에서 天機之發을 근간으로 한 詩道論은 이후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농암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비평양상을 나누고 격식과 모방을 배격하고, 개성화된 시풍을 가진 시인을 높게 평가하였다.

농암의 고문론의 중점인 지지론은 자구를 맹목적인 답습을 배격하고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글쓰기를 본질론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멀리는 일련의 당쟁관계속에서 쟁점화된 묘지명사건 등을 계기로 이에 대한 의식이 싹텄으며, 이후 사마천의 사기, 한유, 구양수 등의 문장을 검토하는 데서 그 이론적 바탕이 성숙되었다. 그의 비지론의 요체는 간엄법(글의 大體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술을 간략히 하는 것)과 편장법(亡者의 인물됨과 행적을 드러나게 서술하여 서술을 후세의 독자들에게 효과있는 전달을 목적으로, 문장 전체를 작가의 안에 입각해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인데, 작품의 성취도를 높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다.

다섯째, 농암의 활동하던 시기는 문학현상에 전환적 사고가 요청되는 시기였다. 과도 기적 상황에서 중국문학의 영향의 문제점, 우리 문학에 대한 예리한 성찰을 통한 문제의 접근을 주목하였다.



石室書院祭享 安金家系圖

